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소비가치,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Consumption Values, Materialism, Impulsive Buying of University Students Depending on the Styles of Money Attitudes and Money Values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복지정보전공

교수 김정훈**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은희***

College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Kim, Jung-Hoon

Dep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ciences, Inha University

Professor: Lee, Eun-Hee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compare with attitudes of consumption, materialism, and impulsive buying depending on the styles of money attitudes and money values. One hundred eighty three university students were surveyed. From the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consumption, materialism, and impulsive buying between the money attitude styles (affective and cognitive), and money value styles (material oriented and value oriented). Also affective money attitude style was more popular in the material oriented value style and cognitive style was more in value oriented style.

▲주요어(KeyWords): 돈에 대한 태도(money attitudes), 돈에 대한 가치(money values), 물질주의(materialism), 구매충동(impulsive buying), 소비가치(consumption value)

I.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우리들의 경제생활, 특히 소비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은 근본적으로 소비생활의 도구인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은 교환의 수단으로 실용적인 도구로서 경제생활을 위해 사용되지만,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무시할 수 없

다. 또 사람들은 돈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생활을 관리하는 양식이나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양식에서도 차이를 갖게 한다.

지금까지 돈에 대한 태도나 가치, 윤리 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여러편 보고되었으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 한국인들의 돈에 대한 태도 연구가 여럿 발표되었다 (김정훈·Masuo·Malrouit & Hanashiro, 2002; 김영신, 2001.; 김정훈, 2002; 김정훈·이은희, 2001; 동환숙·김정훈, 2001; 홍은실·황덕순, 2001; 허경옥·백은영·정순희, 1997; 홍은실·황덕순·한경미, 2001; Masuo·Kim·Malrouit & Hanashiro, 2001). 이렇게 돈에 대

* 본 연구는 2002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김정훈 (E-mail : osu@wonkwang.ac.kr)

*** 교신저자: 이은희 (E-mail : eunhee@dragon.inha.ac.kr)

한 태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돈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비생활 태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이들의 비합리적이거나 역기능적인 소비생활을 바로 잡기 위한 소비자 교육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돈에 대한 태도 자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나 조사 대상 집단들의 돈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차이를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돈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다른 측면의 소비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때문이므로, 단순히 돈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태도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나아가 소비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소비생활 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라고 믿는 소비가치와 물질주의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구매충동과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소비가치관,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등이 돈에 대한 태도 유형과 가치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돈에 대한 태도 연구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는 Yamauch와 Templer(1982)의 도구와 Furnham(1984)의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MBBS)이다. 이중 서양의 연구들은 Yamauch와 Templer의 도구가 심리적인 면에 치중한 것을 비판하고 개발된 Furnham의 MBBS를 많이 이용하였고 (Bailey & Lown, 1993; Bailey, Lawson, Williams, & Lown, 1994; Bailey et al., 1994; Hanley & Wilhelm, 1992; Wilhelm & Fridrich, 1993),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에도 Furnham의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 (Masuo et al, 2001; 김정훈 등, 2002; 동환숙·김정훈, 2001; 김정훈·이은희, 2001).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는 Yamauch와 Templer의 도구가 많이 사용되었다(김영신, 2001; 김정훈, 2002; 허경옥 등 1997; 홍은실 등, 2001; 홍은실·황덕순, 2001). 한편 돈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Tang(1992, 1993 & 1995)의 돈에 대한 윤리성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50개 문항의 Money Ethic Scale(MES)을 개발하고, 이를 12개 문항으로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돈에 대한 윤리성을 Good, Evil, & Budget으로 구조화 하였다.

이들 돈에 대한 태도 연구들은 문화사회적 특성이 다른 국가간의 비교와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에 따른 소비자행동 특성

의 차이에 관심을 갖었다. 그 결과 국가간의 돈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 돈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정훈 등, 2002; Masuo 등, 2001; Masuo & Reedy, 1997; Bailey & Lown, 1993; Bailey et al., 1994).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계 저축행동과의 관계 (허경옥, 백은영, 정순희, 1997), 강박구매 성향 (김영신, 2001), 신용에 대한 태도 (김정훈, 2002), 금전사용행동 (홍은실, 황덕순, 한경미, 2001), 물질주의 경향, 가치체계 (홍은실, 황덕순, 2001)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돈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들 소비자 행동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경우, 주부와 대학생들 사이에서 (김정훈·이은희, 2001, 김정훈, 2002), 또 같은 대학생이지만 경제 위기 이전의 대학생들과 이후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동환숙·김정훈, 2001).

2. 소비가치, 물질주의, 구매충동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소비자시대, 1994.2, 11-15), 우리나라 응답자의 33% 정도가 충동구매 경향을 나타냈으며, 미국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개인적 목표에 대한 조사에서 1967년 조사 신입생들의 약 40%의 학생들이 '금전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의미있는 삶의 철학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한 학생은 약 80%의 분포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6년의 조사에는 그 비율이 역전되었다고 한다 (김형길·김정희, 2000). 또한 문화권과 서구화 진전정도에 따라 소비자 가치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서정희·이승희, 2001). 물질주의 가치관은 의생활과 식생활 행동에 영향을 미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과소비 성향과 관련이 있었다. (박성연·이종미·임숙자, 2001). 소비성향이나 물질주의 가치관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사회문화 현상으로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경제사회에서 소비자들의 소비가치, 물질주의, 구매충동은 상호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요한 소비자 행동 영역임을 말한다.

연구들에 의하면, 소비가치를 연구한 여러 연구들은 다양한 소비가치의 구조를 보고하였는데 (박미정·윤정혜, 2000, 권미화·이기춘, 2000, 서정희·이승희, 2001), 이들 소비가치는 구매충동, 물질주의, 소비자 행동의 합리성등 소비자 행동의 여러 측면에 차이를 갖고 있었다. 구매충동의 경험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계층, 결혼여부, 신용카드 사용빈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저렴한 가격, 제품의 품질, 할인판매, 상품의 매력, 유행상품 등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권상희, 1988, 리대용·이상빈·곽현진, 1997). 구매충동은 모두 소비자 가치 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소비자 가치 유형이 구매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구매충동의 차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서정희·이승희, 2001)

물질주의는 소비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으로서 삶의 만족은 사회적 상호관계 또는 단순한 생활에서가 아니라 소유나 소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김형길·김정희, 2000). 물질주의는 물질을 삶의 주된 관심이자 기쁨의 원천으로 삼음으로써 사람들을 지나친 소비로 이끌고 있다 (서정희·조형희, 1997). Belk(1985)의 물질주의 척도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물질주의의 개념과 그 구성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게 되었고, 물질주의와 소비자 행동에 대한 관련 연구도 많이 발표되었고, 물질주의 척도도 Belk의 척도를 기초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개선되었다.

그 결과, 물질주의 가치성향이 강할수록 구매충동 성향이 강하고(송인숙, 1993), 과소비 성향이 강하였다 (서정희, 석봉화, 1998; 백경미, 1995). 물질주의 가치관에서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물질주의 수준이 높았다. 물질주의 가치관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과소비 성향과 관련이 있었다.(박성연·이종미·임숙자, 2001).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물질주의 성향이 낮은 소비자와 비교할 때, 소비행동과 생활양식에 차별적으로 행동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 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소비자들은 허영성향이 강한 특성을 지녔다 (김형길·김정희, 2000). 연령, 용돈액, 가계 소득수준, 가계 소비수준에 따라 물질주의 성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가 많은 집단 (고등학생이), 용돈액이 클수록,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비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았다 (서정희·조형희, 1997).

III. 연구 방법

1. 조사방법

연구 목적을 위해 2001년 6월 남녀 대학생들을 질문지법으로 조사하여 이중 183명(남학생 70명, 여학생 113명)의 자료를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다. 조사는 연령과 전공, 성별의 특성이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학년 수강 가능한 교양과목에서 조사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t-test, X²-test, 군집분석,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척도 및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 유형이며, 종속변수는 소비가치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에 대한 태도, 구매충동 태도이다. 변수들은 모두 5 Like Scale로 측정되었다 (매우 그렇다 5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이들 변수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 검증된 문항들을 선택하였다. 돈에 대한 태도는 김

정훈 (2002), 돈에 대한 가치관은 Diane & Reddy(1997), 소비가치에 대한 태도는 권미화와 이기춘(2000), 물질주의 태도는 Ger & Belk (1996), 구매충동은 김미선(1996)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 자료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상대적 요인적재량, 요인적재량 .45이상, 그리고 신뢰도 검사 등을 통해 하위구조를 밝혀 사용하였는데, 돈에 대한 태도 유형과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은 군집분석과 유형의 관련 요인들의 차이 검증을 통하여 군집의 유형을 명명하였다.

그 결과, 돈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5개 하위구조를 얻었는데, 이들은 안전, 감정, 성공, 인식, 불안이며, 이들의 신뢰도는 각각 .831, .674, .683, .503, .611이었으며, 이들의 총분산 설명력은 63.67 %였다. 돈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하여는 2개 하위구조를 얻었는데, 물질 중심적 가치관과 의미 중심적 가치관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들의 신뢰도는 각각 .667과 .617이었으며, 이들의 총분산 설명력은 58.87%였다 <표 1>

한편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유형화하기 위한 군집분석결과와는 <표 2>와 같다. 따라서 돈에 대한 태도의 불안, 성공, 감정 영역의 값이 더 큰 군집 1은 정서형으로, 안전영역이 더 큰 군집 2는 인지형으로 명명하였으며, 물질 중심적 가치 수준이 더 높은 군집 1은 물질중심형, 의미 중심적 가치수준이 더 높은 군집 2는 의미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가치에 대한 태도의 3개 하위구조는 과시성, 절약성, 차별성로서 이들의 신뢰도는 각각 .724, .749, .611이었으며, 이들의 총분산 설명력은 55.65 %였다.

물질주의에 대한 태도의 4개 하위구조는 부러움, 보존, 소유, 관대하지 못함으로서 이들의 신뢰도는 각각 .619, .719, .459, .629이었으며, 이들의 총분산 설명력은 63.91%였다. 구매충동에 대한 태도의 2개 하위구조는 심리충동과 상품충동으로서 이들의 신뢰도는 각각 .849와 .733이었고, 이들의 총분산 설명력은 64.39%였다.

<표 1>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문항들의 요인분석

돈에 대한 태도 (Total R ² = 63.67%)		공유값	1	2	3	4	5	신뢰도	고유값
안전 (17.07%)	목표를 위해 저축하는 편이다	.651	.861					.831	3.31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두고 있다	.751	.845						
	만일을 위해 재정계획을 하는 편이다	.720	.800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555	.727						
감정 (13.19%)	기본생활을 위해 돈을 쓴다	.764		.822				.674	2.60
	기분이 나쁠 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741		.813					
	돈을 지출하는 계획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679		.793					
성공 (13.07%)	때때로 그들의 능력이나 성취와 관계없이 나보다 돈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났다고 느낀다	.637			.795			.683	1.91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다	.597			.723				
	돈이 성공의 궁극적인 상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709			.637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랑할 때가 가끔 있다	.523			.564				
인색 (10.31%)	물건을 살 때마다 꼭 속아서 사는 것 같다	.593				.761		.503	1.30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말하는 편이다.	.392				.661			
	물건을 산 후에 꼭 '다른 데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하는 느낌이 든다	.543				.565			
불안 (10.03%)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늘 걱정하는 편이다	.714					.799	.611	1.07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걱정이 된다.	.618					.710		
돈에 대한 가치관 (Total R ² =58.87%)			1		2				
물질중심 가치관 (30.39%)	저축하는 것보다 쓰는 것을 좋아한다	.772		.878				.667	2.11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저축하고 참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563		.744					
	비록 같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항상 새것을 갖고 싶다	.482		.679					
의미중심 가치관 (28.47%)	인기없는 부자보다 인기있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	.643				.802		.617	1.42
	항상 마음이 평화롭다면, 가난하더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545				.727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526				.713			

주: () 속 수치는 요인별 % of R²

<표 2> 군집분석에 따른 차이

		군집1 (정서형)	군집2 (인지형)	t	p
돈에 대한 태도	불안	3.72 (.78)	3.28 (.75)	3.92	***
	성공	2.82 (.60)	2.05 (.58)	8.74	***
	안전	2.70 (.84)	3.34 (.78)	-5.33	***
	인색	2.79 (.65)	2.71 (.61)	.87	
	감정	3.54 (.52)	2.33 (.62)	14.30	***
		군집1 (물질형)	군집2 (정신형)	t	p
돈	물질중심	3.49 (.55)	2.58 (.62)	10.48	***
가치관	의미중심	3.09 (.64)	3.71 (.67)	-6.04	***

*p<.10, **p<.05, ***p<.01

<표 2> 종속변수 문항들의 요인분석

소비가치 (Total R ² = 55.65%)		공유값	1	2	3		신뢰도	고유값
과시성 (22.89%)	신물은 남이 보기에 버젓하도록 비싼 것을 하는 것이 좋다	.603	.797				.724	2.68
	유명상표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670	.722					
	브랜드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옷을 입는 태도 괜찮다	.460	.678					
절약성 (20.7%)	저렴하고 괜찮은 옷 두벌보다는 비싼 유명상표 옷 한벌을 사는 것이 더 낫다	.450	.676				.749	2.36
	제품을 선택할 때 그 제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한지 고려해야 한다	.737		.827				
	물건은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남겨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653		.810				
차별성 (12.0%)	제품을 고를 때 그 제품이 가격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650		.790			.611	1.08
	고장난 물건은 고쳐서 쓰는 것이 좋다	.418		.547				
	디자인이나 색상이 독특한 것이 마음에 든다	.547			.827			
	나만의 감각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염색할 수도 있다	.452			.705			
	다른 사람과 달라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싶다	.481			.581			
물질주의 태도(Total R ² = 63.91%)			1	2	3	4		
부러움 (17.03%)	물건을 살 때 나와 다른 사람들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	.638	.784				.619	2.66
	세상에는 내가 자리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599	.742					
	나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한다	.622	.668					
보존 (16.10%)	기념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792		.882			.719	1.39
	물건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	.762		.836				
소유 (15.92%)	아주 값싼 것이라도 그것을 훔쳐가면 매우 속상하다	.611			.754		.459	1.24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별로 신경쓰이지 않는다	.571			-.743			
	내가 집에 없을 때, 누군가 내 집에 있는 것이 싫다	.341			.508			
관대하지 못함 (14.87%)	친구들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을 때 신경이 쓰인다	.750				.857	.629	1.10
	내 소유물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 갈까봐 걱정한다	.705				.783		
구매충동(Total R ² =64.39%)			1	2				
심리 충동 (38.81%)	계획없이 상품을 산 후, 잘 샀다고 느낀 적이 있다	.831	.887				.849	3.91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언가 홀린 듯이 물건을 산 적이 있다	.831	.887					
	유행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살 때가 있다	.596	.765					
	사고 싶은 물건을 갑자기 사고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올 때가 있다	.466	.647					
상품 충동 (25.57%)	상품에 대해 잘 몰랐지만, 상점에서 상품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구매한 경험이 있다	.753		.862			.733	1.24
	첫눈에 마음에 든 상품을 살 때가 있다	.625		.754				
	상품이 독특해서 계획없이 구입한 경험이 있다	.605		.725				

주: () 속 수치는 요인별 % of R²

IV. 연구 결과의 해석

1. 조사 대상의 특성

연구조사 대상자들은 남학생 70(38.3%)명과 여학생 113(61.7%)명으로 총 183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21세였다. 이들은 월평균 약 25만원의 용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85% 이상의 학생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신용카드의 소지율은 약 33%로서 아직 많은 학생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표

4>.

또한 돈에 대한 태도 유형은 정서형은 47.5%, 인지형은 52.5%로서 인지형이 조금 더 많았고,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은 물질중심형이 51.4%, 의미중심형이 48.6%였다. 그런데 돈에 대한 태도 경향은 불안한 태도가 3.49로서 가장 높고, 성공에 대한 태도가 2.42로 가장 낮았고, 돈에 대한 가치 경향은 물질중심 경향은 3.05이고 가치지향적 경향은 3.39로서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돈에 대해 가치지향적 태도를 갖는 경향을 보였다.

소비가치에 대한 태도는 절약성이 다른 영역에 비해 훨씬 높았고 (M=4.15), 차별성과 과시성 경향이 각각 3.48과 2.77이었다.

물질주의에 대한 태도는 소유에 대한 태도가 3.62로 가장 높고, 보존에 대한 태도와 관대하지 못한 태도는 둘다 2.72로서 낮았다. 구매충동은 심리적

충동 경향이 훨씬 높았으며 (M=3.49) 상품으로 인한 충동 행동 경향은 3.0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 조사대상들의 일반적 특성(N=183)

	N (%)		M (SD)	
일경험	183 (100.0)	돈에 대한 태도	불안	3.49(.79)
	있다		157 (85.8)	성공
	없다	26 (14.2)	안전	3.04(.87)
신용카드	183 (100.0)	돈 가치관	인색	2.75(.63)
	있다		60 (32.8)	감정
	없다	123 (67.2)	물질중심	3.05(.74)
돈 태도유형	183 (100.0)		의미중심	3.39(.72)
정서형	87 (47.5)	소비 가치	과시성	2.77(.67)
인지형	96 (52.5)		절약성	4.15(.53)
돈 가치관 유형	183 (100.0)	물질주의 태도	차별성	3.48(.67)
물질중심형	94 (51.4)		관대하지못함	2.57(.77)
의미중심형	89 (48.6)		보존	2.72(.82)
			부러움	3.32(.70)
	M (SD)		소유	3.62(.68)
연령	20.76 (2.17)	구매 충동	상품충동	3.05(.75)
월평균 용돈액(원)	244536 (144076)		심리충동	3.49(.75)

*p<.10, **p<.05, ***p<.01

2. 돈에 대한 태도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돈에 대한 태도 유형에 따른 돈에 대한 가치관, 소비가치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행동들에 대한 차이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돈에 대한 태도 유형인 정서형과 인지형의 차이는 물질주의 태도의 소유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모든 하위 영역에서 p<.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정서형은 돈에 대하여 물질중심적 가치성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소비가치와 관련하여서는 과시성과 차별성 경향이 높았다. 물질주의에 대한 태도에서는 소유 이외에 관대하지 못함, 보존, 부러움 영역에서 정서형이 인지형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매충동 역시 상품충동에서나 심리충동에서나 정서형이 인지형보다 높은 경향이였다. 따라서 돈에 대한 태도의 인지형은 의미중심적인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으며, 소비가치와 관련하여 절약성이 더 높았다.

3.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에 따른 돈에 대한 태도, 소비가치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행동들에 대한 차이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인 물질중심형과 의미중심형의 차이는

돈에 대한 태도 영역 중 불안, 성공, 감정영역에서 물질중심형이 의미중심형보다 높았으며, 소비가치 영역 중 과시성과 차별성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물질주의 태도의 모든 영역, 관대하지 못함, 보존, 부러움, 소유에서 물질중심형이 더 높았다. 구매충동의 상품충동과 심리충동도 물질중심형이 더 높았다.

의미중심형은 돈에 대한 태도 영역 중 안전에서, 소비가치 중 절약성에서 물질중심형보다 높았다. 그런데 돈에 대한 태도 중 인색 영역에서는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 유형과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의 관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X² =39.84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정서형에서는 물질중심형이 70.2%, 의미중심형이 29.8%로서 물질중심형이 우세하였고, 인지형에서는 의미중심형이 76.4%, 물질중심형이 23.6%로서 의미중심형이 우세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의 소비가치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등이 돈에 대한 태도 유형과 가치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2001년 6월 남녀 대학생들을 질문지법으로 조사하여 이중 183명(남학생 70명, 여학생 113명)의 자료를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험적 요인분석, t-test, X²-test, 군집분석,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6> 돈에 대한 태도 유형에 따른 차이

		정서형	인지형	t p
돈 가치관	물질중심	3.43 (.62)	2.69 (.66)	7.72 ***
	의미중심	3.16 (.72)	3.60 (.66)	-4.27 ***
소비 가치	과시성	2.96 (.62)	2.59 (.67)	3.85 ***
	절약성	4.04 (.60)	4.26 (.43)	-2.76 ***
	차별성	3.64 (.66)	3.32 (.65)	3.32 ***
물질주의 태도	관대못함	2.80 (.80)	2.36 (.68)	4.05 ***
	보존	2.87 (.83)	2.59 (.79)	2.28 **
	부러움	3.56 (.67)	3.10 (.66)	4.68 ***
	소유	3.66 (.73)	3.59 (.63)	.68
구매 충동	상품충동	3.44 (.61)	2.69 (.70)	7.72 ***
	심리충동	3.69 (.70)	3.31 (.76)	3.49 ***

*p<.10, **p<.05, ***p<.01

<표 7>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에 따른 차이

		물질중심형	의미중심형	t	p
돈에 대한 태도	불안	3.63 (.74)	3.34 (.82)	2.51	***
	성공	2.68 (.67)	2.14 (.63)	5.64	***
	안전	2.84 (.87)	3.25 (.82)	-3.33	***
	인색	2.73 (.61)	2.78 (.64)	-.52	
	감정	3.27 (.68)	2.52 (.81)	6.83	***
소비 가치	과시성	3.00 (.66)	2.52 (.59)	5.26	***
	절약성	4.08 (.58)	4.23 (.47)	-1.95	**
	차별성	3.63 (.67)	3.31 (.63)	3.41	***
물질주의 태도	관대하지못함	2.77 (.80)	2.36 (.69)	3.73	***
	보존	2.83 (.76)	2.61 (.86)	1.71	*
	부러움	3.53 (.66)	3.09 (.67)	4.54	***
	소유	3.72 (.72)	3.51 (.62)	2.09	**
구매충동	상품충동	3.33 (.66)	2.75 (.73)	5.61	***
	심리충동	3.70 (.63)	3.26 (.81)	4.11	***

*p<.10, **p<.05, ***p<.01

<표 8>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들의 관계

		돈에 대한 태도 유형		전체
		정서형	인지형	
돈 가치관	물질 중심형	66	21	87
		70.2%	23.6%	100.0%
		75.9%	24.1%	
돈 가치관	의미 중심형	28	68	96
		29.8%	76.4%	100.0%
		29.2%	70.8%	
전체		94	89	183
		100.0%	100.0%	100.0%
		51.4%	48.6%	

돈에 대한 태도는 불안, 성공, 안전, 인색, 감정의 하위구조와 유형으로서 정서형과 인지형으로, 돈에 대한 가치관은 물질중심 가치관과 의미중심적 가치관의 하위구조를 갖고있으며, 이들을 통해 분류된 유형 분류(물질중심형과 의미중심형)를 사용하였다. 소비가치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은 기존 연구들에서 이용한 문항들을 사용하여 조사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상대적 요인적재량, 요인적재량 .45이상, 그리고 신뢰도 검사 등을 통해 하위구조를 얻었으며,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① 소비가치에 대한 태도는 과시성, 차별성, 절약성 ②물질주의 태도는 관대하지 못함, 보존, 부러움, 소유 ③구매충동은 상품충동과 심리충동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은 인지형과 물질중심형이 우세하였으며, 남학생들은 인지형과 의미중심형이, 여학생들은 정서형과 물질중심형이 많았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 유형과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의 관계는 정서형에서는 물질중심형이, 인지형에서는 의미중심형이 우세하였다.
2. 돈에 대한 태도 유형에 따라서는 1)돈에 대한 가치관 하위 영역 중 물질중심적 가치관은 정서형이, 의미중심적 가치관은 인

지형이 더 높았다. 2)소비가치의 하위영역 중 과시성과 차별성은 정서형이, 절약성은 인지형이 더 높았다. 3)물질주의 태도 하위 영역 중에서는 관대하지 못함, 보존, 부러움 모두에서 정서형이 인지형보다 높았다. 4)구매충동의 하위영역에서는 상품충동과 심리충동 모두 정서형이 더 높았다.

3.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에 따라서는 1)돈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 중 불안, 성공, 감정영역에서 물질중심형이 높았고, 안전함에서는 의미중심형이 높았다. 2)소비가치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과시성과 차별성은 물질중심형이, 절약성은 의미중심형이 높았다. 3)물질주의 태도에서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물질중심형이 더 높았다. 4)구매충동에서도 두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물질중심형이 의미중심형보다 높았다.

따라서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에 있어 인지형과 의미중심형의 연령이 높다는 것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돈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돈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가치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돈에 대해 정서적 유형의 사람들이 인지적 유형의 사람들이나 물질중심형의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물질주의적 태도와 구매충동, 과시성과 차별성 소비가치가 높았다는 것은 돈을 감정적이거나 사회적인 표현으로 인식하거나 물질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거나 물질주의적인 소비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돈을 감정적이거나 사회적인 표현으로 인식하거나 물질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제로 소비생활의 영역과 소비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소비생활의 가치관과 태도가 확립되는 과정에 있는 대학 신입생들과 더불어 저학년들부터 이러한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집 수 일 : 2002년 6월 4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12월 7일

[참고문헌]

권미화·이기춘 (2000).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행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75-190.
 권상희 (1988) 여성의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선 (1996). 물질주의 성향과 충동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청구논문.
 김영선 (2002) 대학생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에 따른 강박적 구매행동. 소비문화연구, 4(3), 41-66
 김정훈 (2002) 주부와 여대생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

- 학회지, 40(3), 165-175.
- 김정훈 · Masuo, D., Malroux, L., & Hanashiro, R.(2002) 여대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경험: 한국, 일본 및 한국계, 일본계 미국 여대생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1(2), 169-175.
- 김정훈 · 이은희 (2001)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중소도시 성인과 대학생들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제 12차 학술대회 발표집*, 원광대학교, 142-144
- 김정훈 · 정혜정 (1996)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MBBS 적용 및 비교문화적 관점. *원광대학교 원대논문집*, 32-2, 521-535.
- 김형길 · 김정희. (2000) 소비자의 물질주의가 허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3(3), 43-68
- 동현숙 · 김정훈 (2001)대학생들의 IMF 전후 돈관련 태도와 행동 차이 -95년과 2000년 대학생 비교. *한국가정과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3-74
- 리대용 · 이상빈 · 박현진(1997).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쇼핑행동에 따른 구매충동과 강박구매. *광고연구(가을)*, 127-137
- 박미정 · 윤정혜(2000) 청소년 소비자의 자아정체감 상태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소비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3(3), 69-96
- 박성연 · 이종미 · 임숙자 (2001). 남 · 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 · 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1-18
- 서정희 · 이승희(2001).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소비자 가치유형과 구매충동차원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광고연구*, 57, 71-93.
- 서정희 · 조형희(1997, 봄)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과 준거집단이 의복동조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34, 114-136
- 한국소비자보호원(1994)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 허경옥 · 백은영 · 정순희 (1997). 돈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8(2), 43-59.
- 홍은실 · 황덕순(2001). 여대생 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치특성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4(2), 21-37.
- 홍은실 · 황덕순 · 한경미 (2001).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사용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43-158.
- Bailey, W.C. & Lown, J. (1992). Counting the coins: A Cross-cultural evaluation of the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111-116.
- Bailey, W.C. & Lown, J. (1993).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psychology of attitudes towards money.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7, 391-402.
- Bailey, W.C., Johnson, P., Lawson, R.J., Williams, P.K. & Lown, J. (1994). An Exploratory study of the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 Using data from three nations.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178-185.
- Belk, R.W. (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265-280.
- Furnham, A. (1984). Many sides of the coin: The Psychology of money us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 95-103.
- Ger, G. & Belk, R.W. (1996).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materialism.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7, 55-77.
- Hanley, A. & Wilhelm, M.S.(1992). Compulsive buying: An Exploration into self-esteem and money attitud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3, 5-18.
- Masuo, D.M. & Reddy, M. (1997). Comparison of students' money attitudes: A Cross-cultural sampling of selected U.S. and Japan Universities. *Europea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 185-191.
- Masuo, D.M., Kim, J.H., Malroux, L. & Hanashiro, R. (2001). Money Beliefs and Behaviors: A Comparison of Korean, Japanese and Asian American Female College Students. *4th Proceedings of Asian Consumer and Family Economics Association Conference*. 187-195.
- Tang, T.L. (1992). The meaning of money revisite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197-202.
- Tang, T.L. (1993). The meaning of money: Extension and exploration of the money ethic scale in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 93-99.
- Tang, T.L. (1995). The development of a short money ethic scale: Attitudes toward money and pay satisfaction revisit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809-816.
- Wilhelm, M.S. Varcoe, K. & Fridrich, A.H. (1993) Financial satisfaction and assessment of financial progress: Importance of money attitud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81-198.
- Yamauchi, K.T. & Templer, D.I. (1982).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522-528.